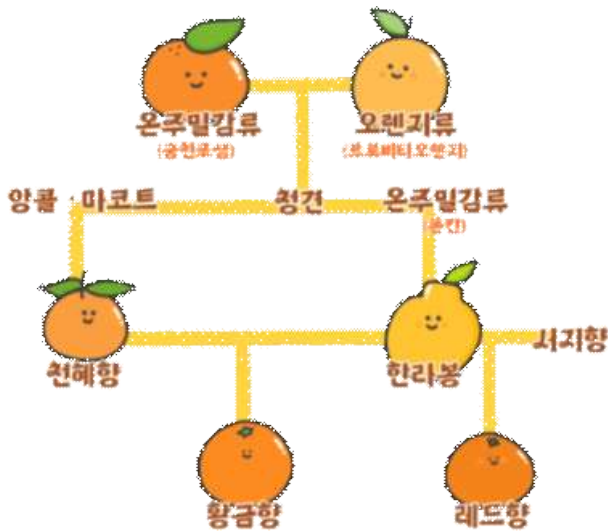



## 굴 가족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새콤달콤한 굴을 먹고 있으면 추운 겨울바람도 모두 잊을 수 있지요! 모양도 이름도 다양한 굴 친구들, 다 같은 굴처럼 보이지만 제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굴은 '감굴류', 감굴에서 변형된 굴 친구들은 '만감류'라고 부릅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종 류	특 징
	당도와 산도가 좋고 표면이 매끄러워 껍질이 잘 벗겨져 먹기 편합니다.
	‘향이 천리를 간다.’ ‘천 가지의 향이 있다.’ ‘하늘이 내린 향’ 등의 뜻이 있습니다.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요. 2월에서 4월까지 만날 수 있어요.
	꼭지가 튀어나온 모양이 한라산을 닮아서 ‘한라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과육은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12월에서 4월까지 만날 수 있어요.
	천혜향과는 또 다른 독특한 향이 있고, 알맹이가 통통하고 신맛이 적어요. 5월에서 12월까지 만날 수 있어요.
	껍질 색이 붉어서 ‘레드향’이라고 하며,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습니다. 12월에서 3월까지 만날 수 있어요.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진청공식블로그 농다락, 참샘스쿨

## 우리나라 절기와 풍습: 12월 7일 대설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날 대설! 특히 24절기 중 대설이 있는 음력 11월은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 농부들에게 있어서 일 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農閑期)이기도 합니다.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말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므로 차가운 날씨에 피해를 적게 입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우리나라 절기와 풍습: 12월 22일 동지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22번째인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옛날부터 ‘작은 설’이라고 부르며 중요하게 생각한 동짓날에는 팔으로 팔죽을 끓여 먹는데 팔의 붉은 색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팔죽에는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넣어 끓이는데,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만들어 새알심이라 부릅니다.

이 ‘동지’에도 음력 날짜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2023년의 동지는 음력 11월 10일입니다. 올해는 무슨 동지인지 찾아보세요!

이 름	특 징
애동지	음력 11월 10일까지의 동지로 ‘아기동지’ ‘오동지’라고도 부릅니다. 이 날에는 팔죽 대신 <b>팔시루떡</b> 을 먹어요.
중동지	음력 11월 11일 ~ 11월 20일 사이의 동지로 <b>팔시루떡이나 팔죽 중 한 가지</b> 를 먹어요.
노동지	음력 11월 21일 이후의 동지로 <b>팔죽</b> 을 먹어요.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